

새일센터의 여성 취업성과 분석*

-e-새일 DB와 고용보험 통합 DB 중심으로-

권태희**

e-새일 DB와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구직자의 특성과 취업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년 여성 구직자의 재취업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구직 건수도 매년 10만 건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은 주로 40대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새일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새일센터의 취업성과를 확인한 결과 취업률은 2015년 52.5%에서 2016년 43.9%, 2017년 32.5%로 매년 취업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3개월 이내의 구직마감시스템이 있어서 구직 등록 후 재취업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때 다수의 취업 정보가 누락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 취업 특성상 구직기간이 길고 취업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취업성과를 점검하는 데에는 고용보험 DB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다만, 새일센터의 DB에는 고용보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여성 취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주로 정규직보다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계약직·시간제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새일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중 고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직업상담서비스와 인턴연계사업이 매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훈련서비스는 취업기간을 구직 등록 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할 경우, 실업 탈출 확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핵심주제어: e-새일 DB, 고용보험 DB,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성과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45, J68

I. 서론

2009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여성 재취업 직업훈련기관들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사업을 위탁받

* 본 연구는 ‘2018년 고용서비스 심층평가’(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수정 보완 하였음을 밝힙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 연구위원, 전화: (043) 870-8222, E-mail: tkwon@keis.or.kr

논문투고일 2019. 7. 4 수정일: 2019. 7. 29 게재확정일: 2019. 8. 8

게 되면서 본격적인 경력단절여성 중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2017년 말 기준 2018년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 155개소¹⁾로 확대되어(2009년 72개소) 직업교육은 790개 과정 1만 6,000명(2009년 184개 과정, 4,000명), 구직자는 47만 명(2009년 13만 명), 취업자는 17만 명(2009년 7만 명) 규모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다른 한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난 10년 취업지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양적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나 여성 일자리(또는 취업처)의 질, 임금 수준, 고용안정성 등 고용의 질적 측면으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비판(오은진, 2014; 여성가족부, 2018)이 지배적이다.

선행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성과평가는 다소 상이하다. 일반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대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성과는 구직알선율, 고용유지율 면에서 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이며(김난주, 2014; 한국고용정보원, 2018), 노동시장의 취업지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최영섭, 2012) 평가하고 있다. 굳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국한될 필요 없이 실제 고용서비스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취업 실적 부풀리기, 공공과 민간수행기관 간의 상호 실적 경쟁, 수행기관 간 서비스 대상 중복사례 등 사업운영 효과 및 성과관리 효율성 측면이 애로요인으로서 쟁점이 되어 왔다. 공공의 취업지원서비스 역할이 민간으로 대폭 이관, 확대되면서 실적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모니터링 또한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기능적 현상은 고용서비스 관련 법·제도의 품질 개선과 전달체계 과정의 효율화가 긴요한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실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업무와 실적을 관리하는 e-새일시스템은 2014년 이후 워크넷과 연계 운영되고 있다. 실적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e-새일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현황은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고용지원업무 관련 당사자, 전문가, 부처 공무원들의 이해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워크넷 연계형 시스템만으로 e-새일시스템만이 가지고 있는 여성 구직과 취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애로 사항을 호소한다. 즉, 사업성과 실적과 연동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시스템적으로 상충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구직과 취업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공통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경험이 남성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우리나라 여성 구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평균적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8.4년(통계청, 2018)으로 일 경험에 대한 공백기간이 상당한 장기간이고, 취업으로 앞선 연계되기 이전 단계

1) 2018년 새일센터의 개소 수는 158개로 확대되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충분히 받고자 하는 참여자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의 구직정보 획득경로는 가족·친지·친구·지인 및 공공일자리 정보(워크넷, 지역일자리센터)를 활용한 선호도가 4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태희, 2014).

노동시장 중단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애주기(life cycle) 특성, 결혼의 사회적 지위 및 취업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O'Rand and Herenett(1991)는 35세 이후의 여성 취업이 노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임을 밝혔다. 특히, 결혼 상태(marital status)에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들이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Moen(1991)은 성별화된 생애 과정(gendered life course)이라는 개념으로 여성은 결혼, 육아와 같은 생애 사건에 따라 취업 여부나 고용 형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시사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생애주기로 볼 때 중년기 여성(35~59세)의 취업과 가족관계에서 55~59세 여성들에게는 건강이, 45~54세 여성은 부모 역할이 취업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간략하게 살펴본 여성 구직과 취업 특성을 볼 때, 여성의 취업 여부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결혼의 지위, 자녀 유무, 건강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결혼과 출산은 '경력단절'(career break)에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 이탈을 의미하고 노후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들의 구직 경험은 생애주기로 보면 매우 분절적이고 비일관적이며 복잡한 노동시장 진입-이탈경로를 보이기도 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업무관리시스템이자 워크넷 연계로 구축된 성과관리시스템인 여성가족부의 e-새일시스템은 여성의 생애 과정에 걸친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태와 복잡한 구직 과정을 담아내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행 e-새일시스템은 3개월 단위의 구직기간을 유효하게 보기 때문에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구직자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을 지닌 노동시장 행위와 취업 실태를 개인이력 관리(personal profiling)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구직자 관리 측면에서 경력단절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내는 데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가 자의적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대표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실적을 둘러싼 논의 쟁점은 센터의 취업성과에 대한 현장 안팎의 상이한 시각 격차, e-새일시스템 운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업무 및 성과관리시스템인 여성가족부의 e-새일시스템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자격, 취득·상실을 통해 취업자의 노동시장 이동과 형태 및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새일센터사업 참여자의 여성 취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e-새일시스템과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2015~2017년 3년간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고, 두 시스템 연계로 여성 구직자와 취업자의 노동시장 이동, 행태, 취업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e-새일시스템에서 나타난 취업자의 노동시장 상태를 고용보험 DB를 통해 연속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시스템 간 연동된 취업자의 특성을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대표되는 여성 일자리 현황 및 성과 등을 보다 상세히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

즉,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성과(사업운영 실적)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실적을 고용보험 DB와 연계해 볼 때 정량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는가? 두 개의 DB 연계로 나타나는 취업 실적은 어떠한 양적 차이가 있는가? 두 개의 DB상 일치하지 않는 취업자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인적 특성과 취업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유의 기관 업무, 즉 여성고용서비스 특성이 여성 일자리의 취업성과로 잘 반영되고 있는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지원 성과는 무엇이며, 서비스 유형별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solutions)이 무엇인지 두 개 DB 연계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새일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취업성과와 공식적인 성과지표와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가에 대한 단서 제공뿐만 아니라 새일사업의 효율화 방안 개선을 통해 대국민 체감도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II. 새일센터의 구직자 특성

1. 활용 자료²⁾

본 절에서는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가장 대표적인 여성 일자리 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성과 분석에 앞서 구직자의 특성을 살펴

2)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지원과의 적극적 협조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본다. 이를 위해 활용한 기본 자료는 e-새일시스템 DB와 고용보험 DB에서 추출하였다. e-새일시스템은 새일센터의 모든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 데이터 셋으로 기본적으로 새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가 탑재·기록되어 있어 구직 등록자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e-새일시스템의 정보는 구직자 및 상담사의 자기기입식 정형·비정형 정

<표 1> 변수의 정의

변수명	변수 내용
연령	구직 등록 당시 연령(만 나이)
학력	중학교 이하(무학, 초졸, 중졸 포함), 고등학교(고졸), 대학교(2년제, 4년제 포함), 대학원(석사, 박사 포함)
취약계층	장애인(등록 장애인),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고령자(만 55세 이상)
거주 지역	구직 등록 시 응답한 거주 지역(17개 시·도)
센터 유형	새일센터 지정 유형(경력개발형, 산단형, 농어촌형, 자립지원형, 지역산업맞춤형, 일반형 총 6개 유형)
직종	구직 등록 당시 희망 직종(10개 직종, 새일센터 기준)
경력단절 사유	가족구성원의 돌봄, 육아, 임신, 출산, 기타 사유
경력단절 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구인 등록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구직자와 연계된 구인 등록 케이스
취업률	새일센터 기준 취업률(구직 등록 건 대비 취업 등록 건) 고용보험 기준 취업률(구직 등록 건 대비 고용보험 가입 비율)
알선 현황	취업성과에 대한 알선 현황(본인취업, 알선취업, 정부일자리, 창업)
취업 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창업
취업 직종	새일센터: 10개 직종(새일센터 별도 기준) 고용보험: 23개 직종
경력단절 현황	구직 등록 당시 취업경력 여부 (취업경력 없음: 무 경력, 취업경력 있음: 경력단절)
취업소요 기간	구직 등록 후 취업까지 걸린 기간(일)
첫 취업 후 고용 상태 변화	재취업 성공 후 고용 상태(취업유지, 재 단절)
첫 일자리 고용유지 일수	구직 등록 후 취업성공 첫 일자리 고용유지 기간(일)
월 평균 급여	고용보험 취득 이력 기준 월 평균 보수액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연계	구직 등록 이전 고용보험/실업급여 연계 여부 구직 등록 이후 고용보험/실업급여 연계 여부(1차 취업 / 2차 취업)

보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 일정 부분 정확하지 않거나 중요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고용보험 DB는 취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취업자의 법적 노동시장 지위, 즉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고용안정 행정전산정보망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여성 구직자와 취업자의 노동시장 행태 및 노동시장 진입·이탈 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고용보험 DB 자료를 연계·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먼저 e-새일시스템 DB에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 한 (구직)케이스를 기준으로 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연계 서비스, 구인 발굴 정보, 취업 정보,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주요 재정일자리사업에 포함되는 정보변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자료에서 구직번호(구직자 고유번호)를 공통연계 기준으로 고용보험 DB와 연동하여 구직 등록 이전 정보, 구직 등록 이후 재취업 정보 및 두 번째 취업 정보를 추출하였다. 구직자 특성 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표 1>과 같이 정의된다.

2. 새일센터의 구직자 특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사례는 총 110만 3,750건이며, 이를 기초로 구직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새일센터 구직 등록 건은 27만 1,588건이며, 2016년 36만 3,560건, 2017년 46만 8,602건으로 매년 약 10만 건 이상 구직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구직자 분포는 2015년 24.6%, 2016년 32.9%, 2017년 42.5%로 점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2> 참조).

새일센터에 등록된 구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균 연령은 46.0세로 나타났으며, 40대 35만 9,986명(32.6%), 50대 29만 4,859명(26.7%)으로 40~50대 연령층의 구직 등록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력단절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구직자의 비중은 17.9% 불과한 것으로

<표 2> 연도별 구직자 수

(단위: 명, %)

연도별	2015		2016		2017		총계	
구직자	271,588	24.6	363,560	32.9	468,602	42.5	1,103,750	100.0

<표 3> 연령별 특성

구분		구직자 수(명)	비중(%)
연령	평균 연령	46.0세(11,601)	
	20대 이하	112,921	10.2
	30대	197,932	17.9
	40대	359,575	32.6
	50대	294,614	26.7
	60대	125,751	11.4
	70대 이상	12,957	1.2
총계		1,103,750	100.0

<표 4> 학력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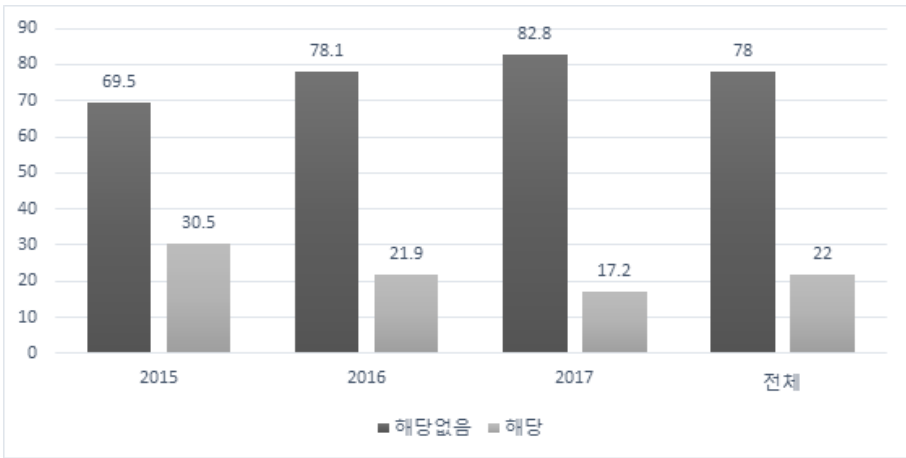
구분		구직자(명)	비중(%)
학력	무응답	1,452	0.1
	중학교 이하	169,159	15.3
	고등학교	483,615	43.8
	대학교	431,559	39.1
	대학원 이상	17,965	1.6
총계		1,103,750	100.0

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구직자의 비중은 70대 이상 연령층 다음으로 낮은 비중(10.2%)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청년층의 취업 문제가 기대 이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노정하고 있다(<표 3> 참조).

다음으로 구직 등록자의 학력 분포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16만 9,159명(15.3%), 고등학교 졸업이 48만 3,615명(43.8%), 대학교 졸업 43만 1,559명(39.1%)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이 40.7%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직자의 학력 분포는 <표 4>와 같다. 새일센터의 구직자 다수는 고졸 이상 학력 또는 대졸 이상 학력이다.

대상자 중 취약계층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장애인은 3,809명으로 0.3%의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북한이탈여성은 986명으로 0.1%에 불과하였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7,215명(0.7%)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은 25,110명(2.3%)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14,794명(1.3%)이었으

<그림 1> 연도별 취약계층 분포(%)



며, 여성 가장은 14,459명(1.3%),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81,401명(7.4%), 장기실업자는 111,866명(10.1%)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약계층 중에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1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령자의 비중이 7.4%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취약계층 여부를 살펴보면 2015년 30.5%에서 2016년 21.9%, 2017년 17.2%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1> 참조).

구직 등록자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 지역이 22만 3,587명(20.3%), 다음으로 서울 지역이 18만 8,519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지역(7만 6,582명, 6.9%)까지 포함할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전체 구직인원의 44.3%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 제주(1.0%), 세종시(0.5%)는 전체 1.5%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직 등록자들의 희망 직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직종은 사무, 회계, 관리직이 29만 615명(26.3%)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14.3%), 보건의료(13.0%), 이미용·숙박·음식(12.1%), 사회복지(10.7%), 경비·청소·가사도우미(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전자(4.3%), 영업·판매(3.9%), 건설·기계·화학·운송(2.3%) 등의 남성 집중 직종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구직 등록 여성의 희망 직종 프레임이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사무, 보건, 사회복지 등 특정 서비스 직종에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표 5> 참조).

<표 5> 희망 직종

업종	구직자(명)	비중(%)
건설, 기계, 화학, 운송	24,871	2.3
경비, 청소, 가사도우미	81,855	7.4
교육, 연구	62,742	5.7
기타	158,217	14.3
보건의료	143,725	13.0
사무, 회계, 관리	290,615	26.3
사회복지	117,785	10.7
영업, 판매	42,625	3.9
이미용, 숙박, 음식	133,873	12.1
전기, 전자	47,442	4.3
총계	1,103,750	100.0

<표 6> 경력단절 현황(고용보험 DB 기준)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전체	
	구직자	비중	구직자	비중	구직자	비중	구직자	비중
무경력	49,830	18.3	59,067	16.2	67,281	14.4	176,178	16.0
경력단절	221,758	81.7	304,493	83.8	401,321	85.6	927,572	84.0
전체	271,588	100.0	363,560	100.0	468,602	100.0	1,103,750	100.0

구직 등록자의 경력단절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DB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해 보았다. 구직 등록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비율은 평균 84.0%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자료 기준으로 연도별 구직자의 경력단절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1.7%, 2016년 83.8%, 2017년 85.6%로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 등록 비율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직 등록자 중 경력단절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20.8%, 1년 미만이 8.4%, 3년 미만이 11.6%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 경력단절이 된 경우가 59.1%로 나타나 대다수 여성 구직 등록자가 장기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구직자의 경력단절 기간(고용보험 DB 기준)

단절기간	구직자(명)	비중(%)
6개월 미만	103,924	20.8
1년 미만	42,157	8.4
1~3년	57,864	11.6
3~5년	682	0.1
5년 이상	295,558	59.1
합계	500,185	100.0

<표 8> 구직자의 경력단절 기간(e-새일 DB 기준)

구분	구직자(명)	비중(%)
무응답	245,458	22.2
3년 미만	740,736	67.1
3년 이상~5년 미만	41,442	3.8
5년 이상~10년 미만	34,167	3.1
10년 이상	41,947	3.8
총계	1,103,750	100.0

특이할 만한 것은 경력단절 기간에 대한 정보는 고용보험 자료와 새일센터 자료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새일센터에서는 구직 등록 시 자기기업식으로 입력한 경력단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직 등록자의 67.1%가 경력단절 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들이 고용보험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비공식적인 일자리(시간제 일자리 및 가족노동 등)에 종사했거나, 구직 등록 시 노동시장 이탈을 의미하는 단절기간이 길수록 노동시장의 구직활동 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고용과 연관된 취업지원서비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 또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구직을 시작한 기간을 경력단절 시작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는 등 다양한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표 8> 참조).

구직 등록자의 이전 경력의 고용기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경력단절 전 가장 최근 근무한 직장의 근속기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경력단절 여성 중 45.2%가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의 비중은 54.8%로서 여성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은 1년 미만의 재

<표 9> 경력단절 전 근속기간

기간	비중(%)
6개월 미만	36.1
6~12개월	18.7
12개월 이상	45.2
합계	100.0

직기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전체 재직경험자의 36.1%나 차지함으로써 여성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표 9> 참조).

III. 새일센터의 취업자 특성과 취업성과

1. 새일센터의 고용지원서비스

새일센터는 주로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직 등록 및 직업상담, 집단상담, 직업훈련, 인턴 연계,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직 등록된 사례를 중심으로 새일센터의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새일센터는 센터가 위치한 지역 및 대상층을 구분한 목적별 유형이 구분되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일센터의 구직등록서비스는 취업을 위해 구직 등록을 하고,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3개월마다 재구직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8).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준비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새일센터는 재구직 등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새일센터의 구직 등록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새일센터의 총 구직건수는 110만 3,750건이다. 이중 중복 구직 등록 건을 제외하고 3년 동안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 등록한 순인원은 총 73만 692명이다. 구체적으로 구직 등록자를 기준으로 구직 등록 횟수를 분석하면 1회만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은 50만 4,596명으로 전체의 69.1%로 나타났다. 약 30.9%는 3년 동안 새일센터를 통해 2회 이상의 재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서비스 지원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표 10> 직업훈련 참여

연도별	2015	2016	2017	총계
직업훈련 참여자 수(명)	16,729	14,166	15,454	46,349
취업자 중 훈련생 비율(%)	12.0	9.0	10.2	10.3
구직자 중 훈련생 비율(%)	6.2	3.9	3.3	4.2

자세히 살펴보면 3년간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사람 중 2회 구직 등록한 자는 19.6%, 3회 등록한 자는 6.8%, 4회 등록한 자는 2.5%, 5회 이상 구직 등록한 자는 2.0%로 나타났다. 연도별 새일센터의 재구직 등록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구직 등록자 중 2015년에는 19%가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20%, 2017년에는 21.1%로 나타나 매년 재구직 등록 사례 건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구직 등록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직 등록 건당 상담횟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구직 등록 1건당 약 2.7회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게는 1회부터 많게는 30회가 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연도별 상담횟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2.9회였던 것이 2016년에는 2.7회, 2017년에는 2.5회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매년 약 10만 건의 구직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담사의 숫자는 늘지 않아, 상담사의 업무 부담 누적이 상담에 투입되는 빈도 및 시간 길이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직업훈련 및 인턴연계서비스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먼저 직업훈련 참여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구직 등록 건 중 4.2%인 4만 6,349명이 새일센터의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에는 약 10.3%가 새일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도별 직업훈련 참여자 수를 분석한 결과 구직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구직 등록자의 증가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취업자 중 훈련 참여자의 비율은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새일의 직업훈련이 일정 부분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0> 참조).

새일센터에서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직업훈련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은 과정별 평균 약 186.7시간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분야와 훈련 분야와의 관련성을 점검한 결과 69.1%가 관련 분야에 일치되는 취업처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이 여성 구직자의 취업에 비교

<표 11> 직업훈련 특성

연도별		2015	2016	2017	전체 평균
직업훈련 시간(시간)		181.5	192.6	186.8	186.7
취업 직종과의 관계성	관계있음(%)	68.2	69.7	69.5	69.1
	관계없음(%)	31.8	30.3	30.5	30.9

<표 12> 인턴연계서비스

연도별	2015	2016	2017	총계
인턴 참여자 수(명)	6,354	6,525	6,129	19,008
취업자 중 새일센터 연계(%)	4.6	4.1	4.1	4.2
구직자 중 새일센터 연계(%)	2.3	1.8	1.3	1.7

적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1> 참조).

다음은 인턴연계서비스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전체 구직 등록 건 중 1.7%인 19,008명이 새일센터의 인턴연계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중에는 약 4.2%가 새일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턴연계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도별 인턴 연계 참여자 수를 분석한 결과 구직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직업훈련과 마찬가지로 구직 등록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취업자 중 인턴연계서비스 참여자의 비율은 약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인턴연계서비스가 취업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2> 참조).

특히, 인턴 종료 후 취업유지 비율을 보면 약 83.4%가 인턴 종료 후에도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중 약 98.1%가 모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다음은 구직자와 연계된 구인처 발굴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구직자와 연계된 구인 발굴 건수는 총 215,158건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구인 등록 건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4> 참조).

구인 등록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구인 등록 건의 90.0%가 300인 미만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인 직종은 사무, 회계, 관리 직종이 18.2%, 기타

<표 13> 인턴 종료 후 취업 형태

(단위: 명, %)

연도별	2015		2016		2017		총계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미취업자	994	15.6	833	12.8	1,332	21.7	3,159	16.6
취업자	5,360	84.4	5,692	87.3	4,797	78.3	15,849	83.4
정규직	5,261	98.2	5,567	97.8	4,717	98.3	15,545	98.1
계약직	99	1.8	125	2.2	80	1.7	304	1.9

<표 14> 연도별 구인 등록(e-새일 DB 기준)

연도별	2015		2016		2017		총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구인 등록 건	74,539	34.6	73,615	34.2	67,004	31.1	215,158	100.0

직종이 17.9%, 보건의료 13.6%, 이미용, 숙박, 음식 11.9% 순으로 나타나 전통적으로 여성 집중 직종의 구인 등록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새일센터의 취업성과

새일센터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일센터 행정시스템 자료인 e-새일 DB와 고용보험 DB 자료를 연계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취업률은 구직 등록 대비 취업 건에 대한 비중으로 새일센터 DB 기준으로 보면 전체 1,103,750건의 구직 등록 대비 454,691건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률은 41.2%로 나타났다. 연도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새일센터 e-새일시스템 자료 기준으로 2015년에는 구직 등록 건 대비 52.5%가 취업하여 반수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으나, 2016년 43.9%, 2017년 32.5%로 점차 취업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5> 참조).

e-새일시스템 기준 취업률은 구직 등록을 하고 3개월 이내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구직마감 처리를 한다. 구직마감이 되더라도 재구직 등록을 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게 되거나, 취업소요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구직자의 취업이 전산망에 누락될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표 15> 연도별 취업률(e-새일 DB 기준)

(단위: 명, %)

	2015		2016		2017		전체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미취업	128,890	47.5	203,825	56.1	316,344	67.5	649,059	58.8
취업	142,698	52.5	159,735	43.9	152,258	32.5	454,691	41.2
계	271,588	100.0	363,560	100.0	468,602	100.0	1,103,750	100.0

<표 16> 연도별 구직 등록자의 고용보험 사업장 취업률(2018년 9월 말 기준)

(단위: 명, %)

	2015		2016		2017		전체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미취업	128,818	47.4	178,928	49.2	239,179	51.0	546,925	49.6
취업	142,770	52.6	184,632	50.8	229,423	49.0	556,825	50.4
전체	271,588	100.0	363,560	100.0	468,602	100.0	1,103,750	100.0

새일센터 운영체계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점을 감안하고 취업률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새일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3개월) 취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누락될 수 있는 취업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고용보험 DB를 통해 체크할 수 있는 구직자의 취업률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직 등록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구직 여성의 전체 평균 50.4%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도별 취업률의 감소세는 현재 분석시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구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취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시점과 시간의 길이(time span) 등 시간적 영향을 고려하면 취업률은 보다 증가할 수 있다(<표 16> 참조).

취업의 시간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취업률 중 구직 등록 6개월 이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구직 등록자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1,103,750건의 구직 등록 대비 415,886건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률은 37.7%로 나타났다. 구직 등록자의 연도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2015년 36.6%였던 취업자 비

율이 2016년 37.9%, 2017년 38.1%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그러나 새일센터의 사업은 매년 1년 단위로 진행되고, 구직 등록 이후 구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집단상담, 직업훈련(교육), 취업알선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준비도 등 특성을 고려할 때, 취업소요 기간을 3개월 이내가 아닌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 기준으로 변경·조정할 필요가 있다.

구직 등록 1년 이내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구직 등록자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1,103,750건의 구직 등록 대비 499,312건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률은 45.2%로 나타났다. 구직 등록자의 취업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3.4%였던 취업자 비율이 2016년 44.6%, 2017년 46.8%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구직 등록 6개월 이내 취업기준보다 취업률이 전체 평균 약 7%p 높게 나타났다(<표 18> 참조).

e-새일 DB와 고용보험 DB에 나타난 취업성과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17> 고용보험 사업장 취업률(구직 등록 6개월 이내 취업 기준)

(단위: 명, %)

	2015		2016		2017		전체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미취업	172,183	63.4	225,700	62.1	289,981	61.9	687,864	62.3
취업	99,405	36.6	137,860	37.9	178,621	38.1	415,886	37.7
전체	271,588	100.0	363,560	100.0	468,602	100.0	1,103,750	100.0

<표 18> 고용보험 사업장 취업률(구직 등록 1년 이내 취업 기준)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전체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미취업	153,636	56.6	201,535	55.4	249,267	53.2	604,438	54.8
취업	117,952	43.4	162,025	44.6	219,335	46.8	499,312	45.2
전체	271,588	100.0	363,560	100.0	468,602	100.0	1,103,750	100.0

<표 19> e-새일 DB 및 고용보험 DB의 취업률(구직 등록 1년 이내 취업 기준)

(단위: 명, %)

	2015		2016		2017		전체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미취업	91,440	33.7	1,407,06	38.7	196,021	41.8	428,167	38.8
새일 취업	62,196	22.9	60,829	16.7	53,246	11.4	176,271	16.0
고용보험 취업	37,450	13.8	63,119	17.4	120,323	25.7	220,892	20.0
새일+고보 취업	80,502	29.6	98,906	27.2	99,012	21.1	278,420	25.2
전체	271,588	100.0	363,560	100.0	468,602	100.0	1,103,750	100.0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e-새일 DB에서는 고용보험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취업실적이 약 16.0%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2015년에는 22.9%였던 것이 2016년에는 16.7%, 2017년에는 11.4%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성과평가에 고용유지율 등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취업실적만을 인정하는 평가체계에 다소 영향을 받은 결과로 추측된다(<표 19> 참조).

고용보험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취업, 즉 e-새일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취업의 성격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보험 DB 취업자와 새일센터에서만 확인되는 취업자를 연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의 구조상 동일 기준으로 분석할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어, 새일센터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특성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고용보험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취업, 즉 e-새일 DB에서만 확인되는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의 특성은 어떠한지 취업자의 이전 경력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DB에 이전경력이 없는 비율이 약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즉, 새일센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재취업 여성의 경우 안정적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의 경우 90% 이상이 이전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새일센터는 노동시장의 비공식적인 일자리, 또는 고용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경험이 있거나 경력이 전문한 여성들이 취업연계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20> 참조).

<표 20> e-새일 DB에서 확인되는 취업자의 특성(경력 유무)

(단위: 명, %)

분류	이전경력 없음		이전경력 있음		전체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36,341	20.6	139,930	79.4	176,271	100.0
고용보험 가입자	48,799	9.8	450,513	90.2	499,312	100.0

<표 21> e-새일 DB에서 확인되는 취업 형태

(단위: 명)

취업 형태	구분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창업	전체
	고용보험 미가입		77,454	35,209	60,237	3,371
		43.9	20.0	34.2	1.9	100.0
고용보험 가입		181,991	51,860	44,232	337	278,420
		65.4	18.6	15.9	0.1	100.0
전체		259,445	87,069	104,469	3,708	454,691
		57.1	19.1	23.0	0.8	100.0

다음으로 취업자의 취업 형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새일센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다른 취업자에 비해 17.5%p 낮게 나타났다. 반면 시간제 일자리와 계약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상대적으로 취업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구직여성들에게 연계한 새일센터의 일자리는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선호하는 시간제 일자리이거나 고용 안정성이 낮은 계약직 일자리가 54.2%를 차지하고 있다(<표 21> 참조).

e-새일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취업자의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여성 집중 직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일센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는 1순위 사무·회계·관리 직종, 2순위 기타 직종, 3순위 이미용·숙박·음식 직종, 4순위 교육·연구 직종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업자의 직종 1순위는 동일하게 사무·회계·관리 직종으로 나타났으나, 2순위는 보건의료 직종, 3순위 기타 직종, 4순위 사회복지 직종으로 나타나 직종 분포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새일센터

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음식·숙박 직종이나 교육·연구 직종 등 근로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새일센터 취업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임금을 비교하였다. e-새일시스템에는 현재 취업자의 임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중 새일센터에서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 취업자를 구분하여 임금 분석을 하였다. 새일센터에서 파악하여 등록하는 취업 정보는 주로 새일센터에서 알선하여 매칭된 취업 건이거나 또는 직접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을 주기적으로 진행한 경우 본인 취업에 의해 획득 가능한 정보이다. 따라서 새일센터의 주요 이용 구직자의 취업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 DB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는 약 1,332,093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새일센터에서 취업확인이 된 구직자의 월평균 임금은 1,297,980원이고, 새일센터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임금 정보를 보유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1,371,288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 수준이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의 급여 수준보다 약 70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다음으로 새일센터의 알선율을 확인하기 위한 알선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취업실적 중 46.7%가 알선 취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취업은 52.3%로 알선 취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직자들의 알선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본인 취업은 2015년 46.4%에서 2016년 53.6%, 2017년 56.6%로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와 반대로 알선 취업은 2015년 52.7%에서 2016년 45.3%, 2017년 42.6%로 연도별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표 23> 참조).

<표 24>의 취업 형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2015년 57.2%, 2016년 57.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56.3%로

<표 22> 월평균 급여

구분	고용보험의 취업	새일+고보의 취업	전체
사례 수	259,115	297,710	556,825
평균(원)	1,371,288	1,297,980	1,332,093
표준편차(원)	671,594	597,762	634,245.7

<표 23> 새일센터의 취업 알선 현황(e-새일 DB 기준)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전체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본인 취업	66,172	46.4	85,594	53.6	86,185	56.6	237,951	52.3
알선 취업	75,247	52.7	72,286	45.3	64,845	42.6	212,378	46.7
정부일자리	0	0.0	624	0.4	28	0.0	652	0.1
창업	1,279	0.9	1,231	0.8	1,200	0.8	3,710	0.8
계	142,698	100.0	159,735	100.0	152,258	100.0	454,691	100.0

<표 24> 연도별 취업 형태(e-새일 DB 기준)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전체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81,562	57.2	92,225	57.7	85,658	56.3	259,445	57.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9,541	20.7	30,853	19.3	26,675	17.5	87,069	19.1
시간제	30,318	21.2	35,426	22.2	38,725	25.4	104,469	23.0
창업	1,277	0.9	1,231	0.8	1,200	0.8	3,708	0.8
계	142,698	100.0	159,735	100.0	152,258	100.0	454,691	100.0

1.5%p 감소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도 2015년 20.7%, 2016년 19.3%, 2017년 17.5%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시간제의 경우 2015년 21.2%, 2016년 22.2%, 2017년 25.4%로 연도별로 차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취업 형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취업직종은 사무, 회계, 관리 분야가 2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15.5%, 보건 의료 분야 14.6%, 이미용, 숙박, 음식 12.0%, 사회복지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분야, 건설, 기계, 화학, 운송 분야는 각각 3.5%로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다음은 취업의 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구직 등록 후의 첫 일자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직 등록 후 재취업한 다음 고용 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30.5%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7.5%였던 취업유지율이 2016년은 25.2%, 2017년에는 42.9%로 2015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 경력단절 비율은 2015년 82.5%, 2016년

74.8%, 2017년 57.1%로 현격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 근로자들은 취업 후 1년 이내에 노동시장을 재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25> 참조).

구체적으로 취업 후 고용유지 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취업 대상자 중 180일(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는 56.6%였으며, 365일(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는 41.8%로 나타났다. 즉, 취업자의 약 60%가 1년 이내에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을 재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26>, <표 27> 참조).

<표 25> 첫 취업 후 고용 상태 변화(고용보험 DB 기준)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전체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재 경력단절	117,721	82.5	138,139	74.8	131,039	57.1	386,899	69.5
취업유지	25,049	17.5	46,493	25.2	98,384	42.9	169,926	30.5
전체	142,770	100.0	184,632	100.0	229,423	100.0	556,825	100.0

<표 26> 첫 일자리의 고용유지일수(고용보험 DB 기준)

연도별	2015		2016		2017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첫 일자리 고용유지 기간	240.8	242.3	196.0	182.6	123.5	110.5	185.1	190.2

<표 27> 고용유지 기간(고용보험 DB 기준)

(단위: 명, %)

구분	고용유지 180일 이상		고용유지 365일 이상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고용유지	315,193	56.6	232,574	41.8
고용비유지	241,632	43.4	324,251	58.2
총계	556,825	100.0	556,825	100.0

<표 28> 고용보험 연계

구분		인원	비중
구직 등록 이전 고용보험 연계	없음	176,178	16.0
	있음	927,572	84.0
	총계	1,103,750	100.0
구직 등록 이후 1차 재취업 후 고용보험 연계	없음	546,925	49.6
	있음	556,825	50.4
	총계	1,103,750	100.0
구직 등록 이후 2차 재취업 후 고용보험 연계	없음	677,495	61.4
	있음	426,255	38.6
	총계	1,103,750	100.0

대상자의 사회보험 보장 여부를 확인하여 취업의 질을 분석한 결과 경력단절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구직 등록자는 84%에 이르렀으나, 구직 등록 후 재취업을 통해 고용보험에 재가입한 경우는 50.4%에 불과하였다. 또한 첫 일자리에서 노동시장 재 이탈 후 재취업에 성공하여 고용보험에 재 가입된 경우는 38.6%로 노동시장의 이탈빈도가 높아질수록 점차 고용보험 가입률은 더욱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의 재 이탈 빈도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기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동이 아닌 비공식 노동시장(informal labor market)의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진입이 용이해짐을 의미한다(<표 28> 참조).

다음으로 실업급여 연계 여부를 살펴본 결과, 경력단절 이후 실업급여가 연계된 경우는 41.5%로 나타났으나, 재취업 이후 재 이탈한 경우 실업급여에 연계된 비율은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재취업 후 실업급여 연계된 경우는 0.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 29> 참조).

이와 같은 노동시장 이동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성 재취업 이후의 상황이 고용안정성 면에서 매우 낮다는 의미이고, 재차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면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고용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즉, 다수가 새일센터의 구직자가 되어 재차 등록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서의 재취업이 아닌 비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재진입 될 가능성이 높다.

<표 29> 실업급여 연계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중
구직 등록 이전 실업급여 연계	없음	645,421	58.5
	있음	458,329	41.5
	총계	1,103,750	100.0
구직 등록 이후 1차 재취업 후 실업급여 연계	없음	959,857	87.0
	있음	143,893	13.0
	총계	1,103,750	100.0
구직 등록 이후 2차 재취업 후 실업급여 연계	없음	1,094,416	99.2
	있음	9,334	0.8
	총계	1,103,750	100.0

IV. 새일센터의 취업지원효과 분석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의 고용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취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의 종속변수인 ‘재취업 성공 또는 실패’는 이산형 변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새일센터 구직 등록 여성이 구직 등록 후 1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분석 모형에 사용된 변수는 <표 30>과 같이 정의된다.

<표 30> 기본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 내용
종속변수	재취업 성공 여부		재취업 성공=1 재취업 실패=0
독립변수	개인 특성	학력	고졸 기준(고졸 이하=1, 초대졸 이상=0)
		연령	20대 이하(20대=1, 그 외=0)
			30대 이하(30대=1, 그 외=0)
			40대 이하(40대=1, 그 외=0)
			50대 이하(50대=1, 그 외=0)
			60대 이상(비교기준) 더미변수
	이전 경력	경력 여부(경력 있음=1, 경력 없음=0)	
취약계층	취약계층 여부(취약계층=1, 일반=0)		
취업지원서비스	상담	구직 등록 이후 상담횟수	
	직업훈련	직업훈련 경험(참여=1, 미참여=0)	
	인턴	인턴사업 참여(참여=1, 미참여=0)	

<표 31> 구직 등록 후 1년 이내 취업 성공요인 로지스틱 분석 결과

구분			β	S.E	Exp(B)
개인 특성	연령	20대	0.563	0.009	1.756
		30대	-0.156	0.008	0.856
		40대	-0.069	0.007	0.933
		50대	0.006	0.007	1.006
		학력	-0.156	0.004	0.855
		이전경력	0.978	0.006	2.660
		취약계층	-0.177	0.005	0.837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횟수	0.039	0.001	1.040
		직업훈련	-0.683	0.011	0.505
		인턴사업	2.840	0.029	17.109

주: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독립변수 중 명목변수에 해당하는 학력, 이전 경력, 취약계층 여부 및 직업훈련·인턴사업 참여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상담은 횟수로 측정되므로 연속변수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여기서 추정된 회귀계수 β , 회귀계수의 표준오차(S.E), Odds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Exp(B)로 구성되어 있다. 승산비(odds ratio)는 Exp(B)로서 해당하는 설명변수가 다른 조건은 일정할 때,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이 재취업하지 않을 확률보다 Exp(B)배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Exp(B)가 1일 경우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뜻하고, 1보다 클 경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1보다 작을 경우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치가 1보다 멀리 떨어질수록 영향력이 크다. 추정된 회귀계수 β 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계수이다. 회귀계수는 0일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뜻하고, 양수일 경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수일 경우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0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영향력이 크며, 유의확률은 0.001(0.1%)보다 작은 경우에만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분석 결과 개인요인 중 연령, 학력, 이전경력, 취약계층 여부는 모두 재취업 성공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연령은 20대, 50대는 60대에 비해 재취업 성공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와 40대는 60대에 비해 재취업할 확

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 연령층이 재취업 성공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 추정된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일 경우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졸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초대졸 이상 여성이 취업할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경력은 재취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단절 이전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의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취약계층 여부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약계층일 경우 재취업 성공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재취업 성공 확률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출산 및 육아기에 있는 30~40대 고학력 여성의 재취업 확률이 여타 연령층과 학력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중요한 관심영역인 여성취업지원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직업 상담과 인턴사업만이 여성재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횟수가 많을수록 여성 재취업 확률이 높아지며, 인턴 연계 사업의 경우도 참여하게 된다면 재취업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직업훈련의 경우는 종속변수가 구직 등록 후 1년 이내에 재취업 여부일 때 직업훈련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는 1년 안에 여성들이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재취업할 가능성은 상담횟수의 절반 정도의 확률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속변수의 분석기간을 늘려 대상기간 전체(3년)를 고려한다면 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새일센터의 구직자들은 단순 직업훈련 참여의 여부보다 충분한 직업훈련 이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일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중 직업 상담과 인턴지원서비스는 비교적 단기간 재취업에 즉각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성 구직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보다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 구직활동 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기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e-새일시스템에 구직 등록을 한 건수를 사용하여 구직 등록 건별 취업(고용보험 취득) 정보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2018년 9월 기준 절단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찰기간 동안 우측 절단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콕스비례위험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모형은 개인 특성 및 취업지원서비스 요인별로 실업 탈출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변수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변

수는 다음과 같다(<표 32> 참조).

실업에서 탈출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 특성 요인(연령, 학력, 경력 유무, 취약계층 여부), 취업지원서비스 요인(상담횟수, 직업훈련, 인턴 참여)의 예측변수와 관계를 나타내는 Cox 모형의 적합성은 우도비 결과에서처럼 (Chi-Square=15,633.488, df=10, Pr<0.001)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표 32> 기본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 내용
종속변수	취업소요 기간		구직 등록 이후 취업시점까지의 미취업 유지일수
독립변수	개인 특성	학력	고졸 기준(고졸 이하=1, 초대졸 이상=0)
		연령	20대 이하(20대=1, 그 외=0)
			30대 이하(30대=1, 그 외=0)
			40대 이하(40대=1, 그 외=0)
			50대 이하(50대=1, 그 외=0)
			60대 이상(비교기준)
	이전 경력	경력 여부(경력 있음=1, 경력 없음=0)	
	취약계층	취약계층 여부(취약계층=1, 일반=0)	
	취업지원서비스	상담	구직 등록 이후 상담횟수
직업훈련		직업훈련 경험(참여=1, 미참여=0)	
인턴		인턴사업 참여(참여=1, 미참여=0)	

<표 33> 전체 분석기간 동안 실업 탈출 요인 콕스 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β	Hazard Ratio
개인 특성	연령	20대	-0.040	0.960
		30대	-0.126	0.882
		40대	-0.084	0.919
		50대	-0.062	0.940
	학력		-0.030	0.971
	이전 경력		0.182	1.199
	취약계층		-0.096	0.908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횟수		0.007	1.007
	직업훈련		0.434	1.648
	인턴사업		1.220	3.387

Chi-Square=21,639.660, df=10, Pr<0.001

주: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실업 탈출(재취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대 이상보다 다른 연령대가 실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도 재취업 성공(실업 탈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상일 경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대졸 이상 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고졸 이하의 여성보다 0.971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 경력은 재취업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경력단절 이전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의 실업 탈출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취약계층 여부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일 경우 재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상담실적과 직업훈련, 인턴사업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횟수가 많아질수록 재취업 확률이 높아지며, 직업훈련과 인턴사업에 참여할 경우 실업탈출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보다 장기간을 고려할 경우에는 취업소요 기간이 줄어들어 재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효과보다는 직업훈련이나 인턴사업 연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가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보다 재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1.64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사업의 경우는 재취업 성공 확률이 3.38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새일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중 중장기적으로 구직기간을 단축하는 데에는 직업훈련과 인턴 연계지원서비스가 재취업에 상당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e-새일 DB와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구직자의 특성과 취업성과를 분석하였다. 최근 3년 동안 구직자의 증가세를 보더라도 여성 구직자의 재취업 수요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구직 건수도 매년 10만 건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e-새일 DB의 경우 3개년 동안 매년 취업률이 10%p씩 하락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DB에서는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 후 1년까지는 취업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성과분석에서는 여성 재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취업상담과 인턴연계지원 사업은 모두 1년 이내 여성 재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서비스는 구직 등록 후 1년 이내 재취업 성공에는 긍정적이지 못하였으나,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직업훈련의 재취업 가능성과 실업 탈출 확률을 명확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새일센터는 동행면접서비스, 사후관리 사업 및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등 다양한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 활용의 한계로 취업지원서비스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구직자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상담서비스 외에도 새일센터에서는 상담사들이 직업훈련 및 네트워크 사업 등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적인 취업성과로는 나타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고용서비스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소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여성 및 일반 여성 구직자 등 여성 취업을 전문적으로 특화 지원하고 있는 새일센터사업은 이러한 측면을 질적으로 고려한 취업지원서비스 과정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사업비 대비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 및 실적, 상담사 수 대비 구직자 및 구인처 발굴 실적, 여성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등 현장의 실수요와 매치되어 고려되어야 할 평가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새일센터를 일자리 연계 플랫폼으로 하는 여성취업지원서비스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 구직자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의 질적 강화, 직업훈련의 단기·장기 교육의 차별·특화, 인턴연계지원의 규모 확대 등의 관점에서 새일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새일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새일사업의 성과관리 행정 데이터 베이스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이력축적이 시급히 필요하다. 체계적인 사업 데이터의 축적 없이는 사업의 발전 방향과 시장의 고용성과를 올바르게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새일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원시자료, 2018, 내부자료.
- _____,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명서』, 2018.
- 권태희, 『대졸이상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14.
- 김난주,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의 구인·구직·취업 특성 분석: 2013년 e새일시스템 자료 기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김용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제고를 위한 맞춤형 취업효과 연구: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동계학술대회』, 2010, 79~109.
- 김용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정책연구시리즈(2013-19)』, 한국개발연구원, 2013.
- 김종숙·김영옥·김난주·배호중·전병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유지 현황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남승연,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보고서(10), 2018.
- 양서영,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해외사례,” 『Weekly KDB Report』(3.12), 2018, 1~10.
- 여성가족부, e-새일 원시자료, 내부자료, 2018.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2018.
- 오은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력단절 예방기능 강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오은진·박성정·장희영,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향: 경력단절 예방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오은진·신선미·이택면·권소영·김소연,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새일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연구보고(38), 여성가족부, 2014.
- 윤자영·박성재·이지은·윤미래, 『여성 일자리지원 사업평가』, 한국노동연구원, 2010.
- 윤희숙,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KDI FOCUS』 제73호, 2016.
- 윤희숙 외,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한국개발연구원I(8.16. 최종보고서), 2016.
- 이혜승,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실태분석』, 사전분석보고서(3),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2.

조주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제13호, 2011.

최민정,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9)』, 2015, 62~
73.

최영섭,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역할 및 발전방안』,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2012.

최윤선·장미, 『경기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형별 발전방안』, 정책보고서(9), 경
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기초조사』, 2018.

_____, 『수행기관 합동워크숍 자료집』, 일자리사업평가센터(10.31), 2018.

_____, 『여성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워크숍 자료집』, 일자리사업평가센터
(8.16), 2018.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11.29), 2018.

[Abstract]

Analysis of the Female Employment Performance by Saeil Center in Korea

Taehee Kwon*

The female job seekers' attributes who use Saeil Center and their employment result has been analyzed using e-Saeil Center DB and employment insurance DB. The analysis found that the reentrance demand of the female job seekers is consistently growing every year as well as the number of employments using Saeil Center which is increasing by over 100,000 cases every year. The females using Saeil Center are usually females in their 40s whose career interrupted wishing to get a job through Saeil Center.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Saeil Center proved that the employment rate is declining every year from 52.5% in 2015 to 43.9% in 2016 to 32.5% in 2017.

But the employment information could be left out in the event the reemployment after registration takes over three (3) months because of the job seeking closing system. As the female job seeking period tends to be long with a variety of variables, it may be reasonable to confirm the employment result with the employment insurance DB. Provided, however, quite a significant proportion of female employment which cannot be confirmed by the employment insurance is included in the Saeil Center DB, that is mostly part-time works or contract jobs than regular employee positions. Lastly, the analysis of the employment performance at Saeil Center demonstrated that its consulting services and internship connection projects amongst its multiple employment assistance service proved meaningfully effective.

Keywords: e-Saeil DB, employment insurance DB, career interrupted female,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el: +82-43-870-8222,
E-mail: tkwon@keis.or.kr

employment assistance service, employment performance

JEL Classification: J45, J68